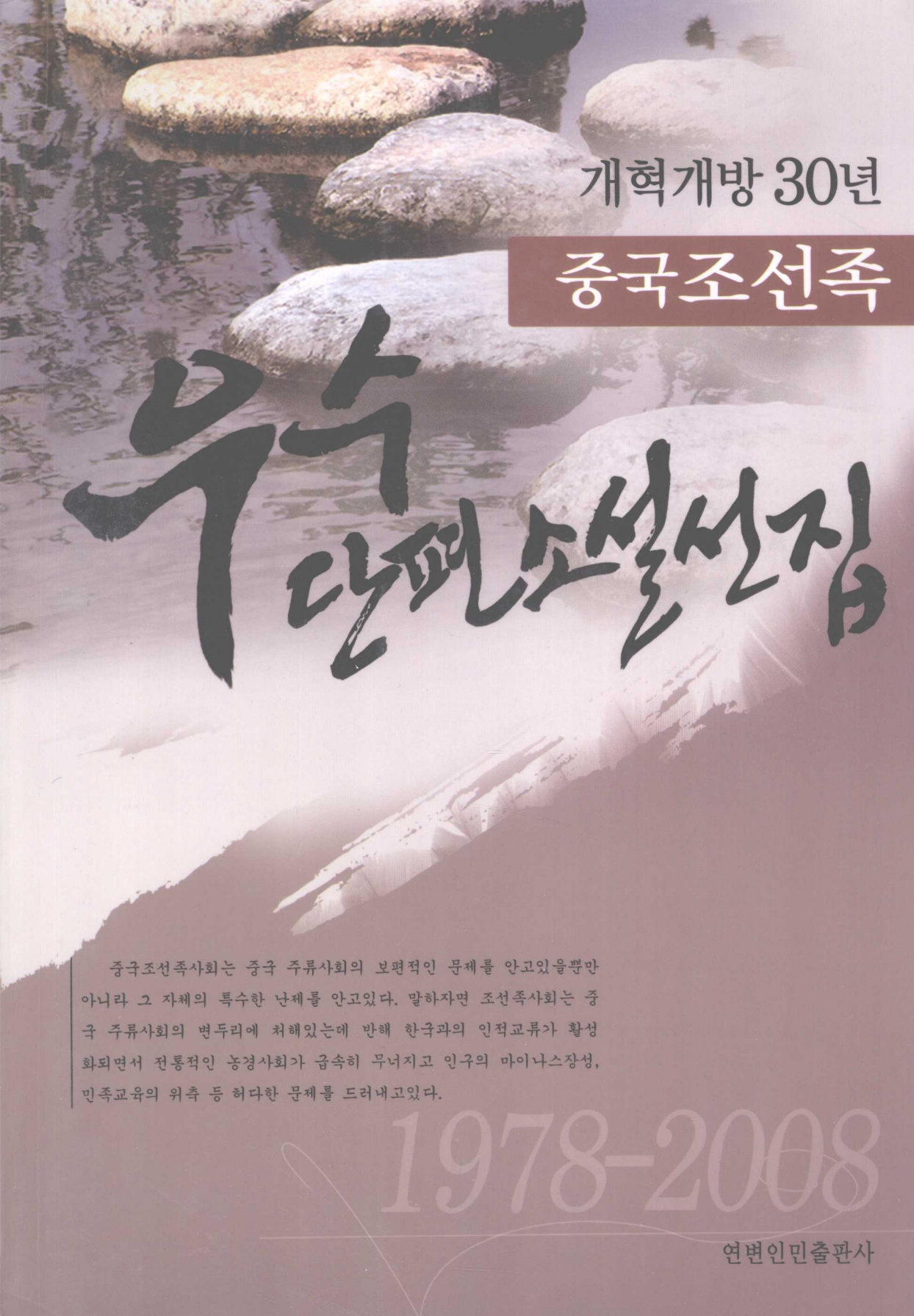




개혁개방 30년

중국조선족

무속 다툼소설선집

중국조선족사회는 중국 주류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를 안고있을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특수한 난제를 안고있다. 말하자면 조선족사회는 중국 주류사회의 변두리에 처해있는데 반해 한국과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히 무너지고 인구의 마이너스장성, 민족교육의 위축 등 허다한 문제를 드러내고있다.

1978-2008

연변인민출판사

개혁개방 30년

중국조선족

우수단편소설선집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崔东日
责任校对：崔顺兰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优秀短篇小说选集：朝鲜文 / 金学铁等著.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09. 8
ISBN 978-7-5449-0675-3

I. 中… II. 金… III. 朝鲜族-短篇小说-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IV. I291.947.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54214号

中国朝鲜族优秀短篇小说选集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710×1020 1/16 印张：46.25 字数：66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675-3 （民文）

版次：2009年8月第1版

2009年8月第1次印刷

印数：1-1000册

定价：5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우리 단편소설, 개혁개방 30년의 풍경

- 머리말을 대신하여

개혁개방 30년은 실로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영역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문학은 시대와 력사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 소설은 어떠한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었고 어떤 수작들을 떠올렸는가? 우리에게 중국 주류문학에 그리고 조선(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조선어문학권에 선보일만한 단편소설이 있는가? 오늘 펴내는 단편소설 선집이 이에 웅변적으로 답해줄것이다.

우리는 개혁개방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조선족문단에 발표되었던 천여편의 단편소설가운데서 30편을 골라 이 단편소설선집을 묶었다. 고작 한해에 한편씩 고른 폭이니 그야말로 이 소설작품집에 들어간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한 작가의 작품에서 한편씩만 뽑았으니 그야말로 많은 중견작가들의 수작이 빠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야겠다.

그럼에도 이 단편소설선집은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에서 개혁개방후 우리 단편소설문학 30년의 총결산으로 되며 중국의 주류문학 내지 세계의 조선어문학권과 교류, 대화할수 있는 귀중한 징검다리로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는 이 단편소설선집을 통해 30년 동안 치렬한 작가정신으로

소설창작에 정진해오신 김학철, 림원춘, 류원무와 같은 원로작가들의 얼굴을 볼수 있고 정세봉, 리원길, 고신일과 같은 중년작가들의 얼굴도 볼수 있으며 우광훈, 최홍일, 김혁 등 청년작가들의 얼굴도 볼수 있다. 특히 허련순, 리혜선, 박옥남과 같은 여성작가들의 얼굴을 볼수 있고 박은, 차룡순, 박선석과 같은 농민작가들의 얼굴도 볼수 있어 더욱더 흐뭇하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단편소설선집을 통해 여기에 수록된 문제작들이 발표될 때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떠올릴수 있고 새롭게 접하는 젊은 세대나 국외 독자들은 우리 소설가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질수 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이 단편소설선집에 수록된 소설들은 우리 나라 상처문학, 반성문학, 개혁문학, 뿌리 찾기, 신사실주의 문학과 궤도를 같이하면서도 조선족사회의 특이한 인정과 세태, 조선족사회의 특수한 고뇌와 갈등, 몸부림과 새로운 도전의 발자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을뿐만아니라 “죄수의사”, “금희”, “구춘조카”, “메리”, “명희”, “장손”과 같은 생동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과 만날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소설의 첫째 가는 과제가 성격창조라 할 때 개혁개방후 30년간 우리 소설문학은 우리 조선족사회의 현실과 우리 민족 구성원의 실존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피와 살이 있는 새로운 인물류형들을 창조함으로써 도식화, 개념화된 인물들과 결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리선희의 “락엽”, 허련순의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와 조성희의 “동년”, 박옥남의 “장손”과 같은 소설은 인간의 소외(疏外)라는 인류 보편적주제와 함께 여성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중국의 주류문학 내지 세계 조선어문학권과 대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개혁개방후 30년간 우리 단편소설들은 리얼리즘에 발을 붙이면서도 상징과 극적 아이러니와 역설 등 다양한 소설기법들을 선보이는 수작들을 펴냈다. 소설은 약이 아닌만큼 억지로 읽을수 없다. 뭐니뭐니해도 소설은 재미로 읽는다. 소설속에 담긴 사건이 손에 땀을 쥐게 긴장감이 있어야 하고 인물과 그 운명이 우리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야 한다. 김학철의 소설언어와 리원길

의 소설언어는 다른이들의 모방을 불허하게 일가(一家)를 이루었고 허련순의 소설언어는 한국의 작가들에 비해도 손색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었고 박옥남의 소설은 시시로 새로운 비유를 개발하고있고 경상도사투리 억양이 물씬 풍기는 대화가 일품이다.

이 단편소설선집은 최근 30년간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기본 흐름과 진수(真髓)를 보여주는것만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는 귀한 자료집으로, 많은 독자들에게는 한잔의 커피와 더불어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는 삶의 교과서로 되리라 생각한다.

이 단편소설선집은 개혁개방 30년에 30편만 고르다보니 적잖은 작가들의 수작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십분 많다고 생각하면서 작가 제현의 량해를 널리 구하는바이다.

2009년 7월 30일

중국조선족우수단편소설선집

편찬위원회

차 례



하고싶던 말	정세봉	3
투사의 슬픔	윤림호	23
배움의 길	리원길	37
노랑나비	장지민	73
백양나무길	차룡순	89
가정문제	서광억	105
구춘조카	홍천룡	125
비단이불	류원무	145
몽당치마	림원춘	165
관책과 별책	박 은	201
희로애락	김 훈	223
죄수의사	김학철	249
메리의 죽음	우광훈	267
락엽	리선희	289
봄날의 장례	최국철	301
흘러가는 마을	고신일	325

털 없는 개	박선석	391
고국에서 온 손님	김종운	417
꽃다발가게방	김재국	431
백정 미스터 리	리동렬	445
섭리	김영자	459
동년이 없는 아이	최홍일	475
병재씨네 빨래줄	리혜선	497
바람은 가슴속에 멎는다	강효근	527
동년	조성희	573
푸른 강은 흘러라	량춘식	605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	허련순	615
장백산 사라지다	김 혁	639
인연의 숲에서 하느적이던 풀은	리여천	667
장손	박옥남	689

해제

전환기 조선족소설문학에 대한 주제학적고찰	김호웅	711
------------------------------	-----	-----



개혁개방 30년 중국조선족우수단편소설선집

정세봉편





정세봉작력

1943년 12월 7일(음력) 할빈에서 출생.

1975년 《연변문예》 3호에 처녀작 "불로송"을 발표.

1980년 연변작가협회에 가입.

화룡시문련 전직작가, 《연변문학》 소설편집력임.

저서로는 단편소설집 《하고싶던 말》, 중편소설집 《불세워크의 이미지》 등이 있음.

2005년 퇴직.

하고싶던 말

정세봉

홍철이 아버지에게:

저는 오늘 뜻밖에도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이 편지를 몇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었게요. 더우기 당신의 편지는 참회의 눈물에 폭 젖은 것이니깐요.

“...사랑하는 금희, 용서하오.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나의 지난날 행실을 뼈저리게 뉘우치게 되오. 홍철이와 웅철이는 자나깨나 엄마를 그리워하고있소. 불쌍한 어린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아, 당신은 왜 인제야 이 편지를 보내셨나요? 저는 난생처음으로 이렇듯 구슬프게 이렇듯 속시원히 울어본것만 같아요. 꼭질 많던 인생의 길에서 저의 마음에 고이였던 짜디짠 눈물은 마치도 막혔던 보물이 터지듯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고요히 깊어가는 이 밤, 저는 비로소 떨리는 손으로 필을 들었어요. 막상 필을 들고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종잡을수 없군요. 하지만 저는 이 밤을 지새운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쓰지 않고서는 견딜것 같지 않

아요. 왜 이 시각에 저의 가슴에 서리서리 맺혔던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당신한테 속 시원히 토로하고 싶어지는지...

손꼽아 세여보니 벌써 11년전 일이군요. 저는 그때의 일을 일생동안 잊을것 같지 않아요. 첫사랑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피어나던 그 시절을 저는 지금도 가끔 회상해보곤 합니다.

그때 저보다 세살 우인 당신은 호리호리하고 미끈한 체격에 해맑은 얼굴을 가졌지요. 머리는 또 곱슬머리였구요. 거기다가 소설읽기를 즐겼고 일도 괜찮게 했지요. 아무튼 당신은 처녀들의 마음을 끄는 그 무슨 신비한 매력을 가진 똑똑하고 웅심깊은 총각이었지요. 하기에 우리 마을 처녀들은 은근히 당신을 따랐어요. 꽃같이 예쁜 옥설이는 당신때문에 고민하였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진금이는 남들이 웃을 정도로 당신을 따라다녔어요.

그러한 당신이 하루는 영화구경 가던 참에 조용히 저를 만나서 래일저녁 구룡천 제방뚝 백양나무아래에서 만나자고 하였지요. 왜 만나자까? 저는 노래 부를줄도 춤출줄도 잘 몰랐어요. 몸은 실췌하고 맵시가 없었구요. 얼굴은 희미했지만 다른 처녀들처럼 그렇게 예쁘지는 못했어요. 단지 일욕심이 무섭고 일숨씨가 겹뽕이었지요. 하지만 당신처럼 말쑥하고 낭만적인 총각에게 일 잘하는 처녀가 다 무엇이겠어요.

이튿날저녁 저는 야릇한 호기심과 가벼운 불안을 안고 마을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달빛은 어찌라고 그리도 밝던지 누가 보는것만 같아 가슴만 쿵쿵 뛰었어요.

제가 구룡천 제방뚝으로 나갔을 때 당신은 벌써 거기서 기다리고있었지요. 백양나무아래에 나란히 앉자 당신은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숙연해진 얼굴로 주저하며 이야기했지요.

“금희,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난 어쩐지 금희가 마음에 드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보니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참 마음을 진정하고나서 저는 간신히 말했지요.

“전 아직 그런 생각 못해봤어요.”

“나도 그런줄 알고있소. 아직 어리니까 인제라도 고려해볼수 없겠는 지?”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약돌만 안타깝게 만지작거렸지요.

제가 이윽도록 대답이 없자 당신은 실망한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는 결단성을 보였지요.

“금희, 마음에 없으면 없다고 쿡 찍어 말해주요. 그럼 나도 인차 단념 하겠소.”

저는 당신이 애정생활에서 몸서리치도록 검질기게 달라붙는 그런 류형의 남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자 어쩐지 존경하고싶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밀어버릴 생각을 하니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짐을 어쩔수 없었어요. 하여 저는 애매한 말을 하고말았어요.

“전 인물도 체격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난 그저 마음씨 곱고 부모를 잘 모실수 있는 녀자면 만족이요. 더구나 우리 집은 빚도 많고 살림살이도 변변치 못하요. 나도 금희가 이런 집에 들어서려 하겠는가를 고려도 해보았소.”

당신의 이 말은 이상하게도 당신에 대한 저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바치고있는 사랑이 진정한것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건 전 일없어요. 서로 맞들고 벌면 되지요.”

“그럼?”

“어쩐지 전 믿어지지 않아요. 동무가 저 같은걸...”

저는 낮이 화끈 달아오르며 수집게 웃어보였어요. 그 웃음이 어떤 뜻을 전달했든지 당신은 갑자기 저의 손목을 잡으면서 푹푹한 대답을 재촉했어요.

마침내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좋아요.”

순간 당신은 저를 뜨겁게 포옹하여주었지요.

그후부터 우리는 거의 밤마다 만나다싶이 했지요. 당신은 만날 때마다

소설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었지요.

어느날 밤 당신은 발자크가 쓴 “우제니 그랑데”라는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였지요. 저는 그 이야기에 매혹되었어요. 저는 우제니의 불행한 운명을 동정하면서 생각하던 끝에 응석을 부리듯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동무도…”

“뭐?”

“동무도 샤를르처럼…”

“금희!”

갑자기 당신은 나의 손을 꼭 쥐더니 뜨겁게 속삭였지요.

“난 사랑보다 돈과 지위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샤를르파위의 그런 인간이 아니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난 금희만을 사랑하겠소!”

“동무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것이 없어요. 이런 가정을 이룬후에 힘껏 일하자요. 돼지도 여러마리 기르고 닭, 오리도 치고…”

그날 우리는 밤 가는줄 모르고 미래의 가정과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속삭였지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깊어만 갔어요. 당신은 저를 극진히 사랑해주었고 저는 처녀의 순정을 고스란히 당신에게 바쳤지요.

처녀들은 일터에서 서로 눈을 깜빡하고선 까르르 웃어대었고 아주머니들은 험한 통질도 했어요. 잇달아 뒤에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랑은 좋지만 그런 집에 들어가면 한뼉 고생이지.” 하고 말이에요. 부모들도 “네 오래비가 도시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뭐가 그리 바쁘니? 공연히 고생을 사서 하지 말아라.”라고 통을 주었지요.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인물체격이 좋고 고상한 총각의 사랑을 제가 독차지했다는것으로 하여 마음속엔 기쁨만 솟더군요. 집에 홀로 있을 때면 코노래가 흘러나왔고 거울앞에 마주서서는 희맑진 얼굴을 비춰보곤 했어요. 그러다가도 당신을 생각하고선 얼굴을 싸쥐며 부끄러움을 탔어요.

마침내 우리는 연애생활 2년만에 결혼했지요. 우리는 애정의 뜻을 달고 희망찬 인생항로를 헤쳐나가기 시작했던거예요.

신혼생활의 단꿈을 신고 세월은 빨리도 흘렀어요. 결혼해서 6년이 되니 우리에겐 남자아이 둘이 있게 되었어요. 큰아들 홍철이는 말쑥하고 깔끔한것이 당신을 닮았지요. 작은아들 웅철이는 곰처럼 실하고 귀여웠어요. 아마도 저를 닮았는가봐요.

그동안 살림살이도 부쩍 늘어났어요. 저는 시집은 첫날부터 남만 못지 않게 살아보려고 무등 애를 썼지요. 저는 가끔 서글픈 마음으로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곤 해요.

처음 시집이라고 와보니 말이 아니었어요. 룩순을 바라보시는 시아버진 간염으로 시름시름 앓으시고 시어머니는 한쪽 다리가 불구여서 집일이나 겨우 돌보는 형편이었어요. 시누이 둘이 학교에 다니고 일손이란 당신 뿐이었지요. 해마다 생산대 수입이 낮은데다가 큰시누이까지 시집보내느라 돈을 쓰고나니 집체에 진 빛이 800여원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시부모님은 살아갈 궁리가 잘 돌지 못하는분들이였고 당신도 집체일이나 나가 하고는 잠이 있으면 책이나 들고있는 “선비”였지요. 하여 농촌집이라는게 닭 한마리, 강아지 한마리 치지 않았고 돼지 한마리 있다는것도 고슴도치 같은것이 제구실을 하고말것 같았어요. 가장집물이라야 고작해서 사발 여라문 개와 독 서너개뿐이었어요.

하긴 그러한 살림살이 형편을 모른건 아니였지만 정작 들어와보니 아닌게아니라 기가 막혔어요. 친정집 부모님이 애써 말린것이 무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건 아니였어요. 저는 애정의 힘을 믿었고 자기 힘을 믿었어요. 저는 남보다 더 잘살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적부터 승벽이 세서 무엇이냐 남보다 못하면 분해서 참지 못하는 성미였거든요.

저는 먼저 곰곰히 따져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빛을 벗고 신세 고칠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부부간이 맞들어 벌고 시아버님이 나가서 잔일이나 하시면 해마다 식량값은 될것 같았어요. 하지만 묵은빛과 해마다 덧지는 빛

은 다른 방법을 대여야 했어요. 하여 저는 생각끝에 짐승치기를 크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밀천이 있어야지요? 저는 대장함에 넣은 돈 20원을 가지고 태산같은 난가리를 가려보았어요. 새끼돼지 한마리를 사자니 어쩐지 성차지 않았고 강아지나 닭을 사놓자니 돼지 살 돈이 되지 않았어요. 마침 이웃대에 계시는 오촌숙부네가 새끼돼지 한배를 내운 일이 생각나더군요. 인젠 팔 때가 되었으리라 짐작하고 거길 달려가보았어요. 새끼돼지가 아직 어린 하였지만 젖은 떼였더군요. 저는 외상으로 두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생산대 양돈장에서 외상으로 돼지 한마리를 더 가져오고 원래 있던 고슴도치 같은 돼지는 장에 가서 뽕직한걸로 바꾸어놓았어요. 이렇게 하니 대장함 돈 20원으로는 강아지 두마리와 씨암탉 그리고 새끼를 깨울 오리알을 살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당신은 저으기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어느날 저녁 제가 가정부업계획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반가와하시면서 힘을 합쳐 짐승치기를 잘해보자고 하시였지요.

그때로부터 우리 가정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돼지 네마리가 우리 안에서 꿀꿀거렸고 개 두마리가 문앞에 앉아 왕왕 짖어댔어요. 집뒤로 흐르는 개울물에서 오리들이 갈갈 울어대고 모이 주러 뜨락에 나설라 치면 치마폭에 휘감겨드는 닭무리때문에 진땀을 빼곤 했어요.

그만큼 사람도 바빠 돌아쳐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오면 때를 끓이고 돼지와 닭, 오리를 먹여야 했어요. 돼지먹이는 정말 한정없이 들었어요. 발김을 땀 때면 남들이 다 쉬는 참에도 홀로 돼지풀을 뜯어두었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꼭꼭 한입씩 이고 들어왔지요. 논일을 할 때면 쉼시간에 풀깎 곳이 없어 점심시간마다 앞더기로 달려올라가 제정신없이 풀을 켜어요. 그리고 짬을 타서 자류지와 터밭둘레에다 호박을 심어 초가를 돼지먹이를 해결했고 겨울철엔 배추와 떨어진 콩잎을 끌어들여 겨울먹이를 장만했어요.

닭, 오리 모이도 큰 걱정이었어요. 봄과 가을 같은 닭, 오리를 가두는 철엔 더구나 그랬어요. 알곡과 겨로는 어렵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피

철엔 돌피를 뜯어들었고 탈곡철엔 마당질이 끝난 뒤무지를 다시 날려 쭉정 이벼도 쓸어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빠 돌아 시아버님도 짬을 타서 돼지먹이를 얻어들이느라 바빠 보내셨어요. 시아버님도 점차 저더러 바깥일만 하라면서 짐승개들을 명심하시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선비”도 돼지우리를 더 크게 짓고 닭장과 오리장도 만들었지요. 십리 되는 술공장에 가서 술지게미도 종종 실어왔구요. 물론 저의 독촉에 못이겨 한 일이지만 어쨌든 도와나섰지요. 시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돼지풀을 뜯고요.

한편 저는 집체일도 하루 빠짐없이 이악스레 해냈어요. 해산하기 며칠 전까지도 쉬지 않았고 해산후 한달도 못되어 일발으로 나가군 했어요. 하여 저는 해마다 부녀상등공을 벌었어요.

하지만 저는 힘든줄을 몰랐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솜처럼 나른해져서 어떻게 잠드는지 모르다가도 일발에 나가면 또 힘이 나군 했어요. 그러다보니 몸치장도 등한해졌어요. 겨울철에나 간혹 분을 바르군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해마다 200근 넘는 돼지 네마리씩 길러서 돼지밀천과 사료값을 떼고는 300원씩 생산대의 빚을 갚았어요. 닭은 이십여마리, 오리는 십여마리씩 쳤는데 해마다 더러는 팔고 더러는 새끼를 깨워서 마리수를 보충하군 했어요. 개 두마리에다 닭알과 오리알을 합쳐서 시아버님 약값으로 쓰기도 옷가지와 푯돈있는 해결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자 마을사람들은 “보배”며느리를 삼았다고 칭찬이 자자하였고 시부모님도 마실을 나가선 며느리 자랑에 해 가는줄 모르셨어요.

마침내 우리는 결혼한지 6년만에 생산대의 빚을 몽땅 갚고 분배돈 150원을 쥐여보게 되었어요. 분배돈을 탄 이튿날 우리는 라디오와 찬장을 사놓았지요. 남들도 다 가지고있는것이었던만 왜 그렇게도 희한하던지! 온 집 식구들은 기쁨에 겨워 밤늦도록 잠 잘 생각도 잊은듯했어요. 시어머님은 신기한듯 번듯하게 놓은 찬장을 자주 들여다보셨고 시아버님은 감구지 회가 사무치는지 눈곱이 축축해지셨어요. 라디오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자 홍철이는 손벽을 치며 좋아했고 웅철이는 춤을 추느라 똥기적거려서 집